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8, No. 107, pp.53-82
<https://doi.org/10.29212/mh.2018..107.2>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한국 해군장교 계급장의 변천사

- 금속형 계급장을 중심으로 -

신성재*

1. 머리말
2. 초창기(1946.2.~1946.11.)
3. 과도기(1946.12.~1954.4.)
4. 정착기(1954.5.~1975.8.)
5. 완성기(1975.9.~1980.1.)
6. 맺음말

1. 머리말

계급장(階級章)은 군복이나 군모에 부착하여 군인의 지위나 계급을 나타내는 표지장(標識章)을 말한다. 군인의 계급 고하를 표시하는 상징 물이기 때문에 계급장은 계급체계의 형성 및 분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 해군사관학교 軍史戰略學科 교수

전통시대 군인의 지위 표시는 다양한 소재와 장식, 상징물 등을 통해 구분되었다. 군복의 옷깃 색상으로 구분되는가 하면, 갑옷이나 투구 장식 등을 통해서도 구분되었다. 이같은 구분 방식은 특정한 문양의 계급장을 만들어 사용하는 오늘날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군인의 지위를 나타내는 체계적인 계급장 문양의 제정과 사용은 근현대 시기로 들어와서야 가능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한국 해군장교의 지위 고하를 나타내는 계급장에 대해 계급체계의 변화와 연계하여 금속형 계급장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¹⁾ 해방과 더불어 등장한 현대적 문양의 계급장이 과도기적 단계를 거쳐 정착기에 이르러 금강석(위관급), 대나무 잎사귀(영관급), 별(장관급)로 대표되는,²⁾ 오늘날과 동일한 문양의 계급장으로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그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해군장교의 계급장을 역사적인 시각에서 전론으로 다룬 논고는 부재한 실정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군의 군복식(軍服飾)을 정리한 '90년대 말의 단행본을 통하여 그 내용을 파악해볼 수 있다. 김순규가 저술한 『한국의 군복식발달사 II 현대편』이 그것으로, 이 책의 해군편 부분에는 계급장의 변화 과정이 핵심 내용 위주로 소개되어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하여 1894~1980년까지 사용된 해군장교 계급장의 문양을 글과 함께 그림 혹은 사진 자료를 곁들여 설명함으로써 시각적

1) 금속형 계급장은 주로 근무복에 부착하여 사용하고 있다. 혼련복이나 전투복, 군모 등에는 천으로 제작된 포제형 계급장이 사용되는데, 재질만 다를 뿐 문양은 금속형과 동일하다. 동·하계철용 정복의 소매 및 어깨에 부착하는 계급장(수장, 견장)은 금속형과 달리 세계 해군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금줄을 이용하여 계급을 표시하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금줄로 표시하던 계급장은 1986년부터 1992년까지 해군장교의 계급체계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래의 금줄 계급장에 금속형 문양이 추가되는 등 혼란의 시기를 겪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후 금줄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환원되었다. 이 글에서 검토하는 계급장은 근무복에 부착하는, 독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금속형 계급장에 국한한다.

2) 위관급과 장관급 장교의 계급장을 상징하는 금강석·별 문양에 대해서는 일반 독자들에게 상식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영관급 장교의 계급장 문양에 대해 대나무 잎사귀가 아닌 무궁화로 오해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인 이해도를 높여주었다.³⁾ 백기인도 그의 저서 『건군사』에서 계급장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김순규가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해군창설기에 사용된 문양을 간략히 서술하는데 그치고 있다.⁴⁾ 김순규의 선구적인 성과와 백기인의 관심에 의해 해군장교 계급장의 변천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이해가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있다. 예컨대 초창기 및 과도기적 단계의 계급장에 나타나는 문양적인 특징과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날과 같은 계급체제로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장교의 계층(위관급, 영관급, 장관급)을 구분하는 문양으로 금강석·대나무 잎사귀·별이 사용되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위관급, 영관급, 장관급 장교를 상징하는 소재로 사용된 금강석, 대나무 잎사귀, 별 문양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졌던 것일까?

이 글에서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해군장교 계급장의 변천 과정을 초창기(1946.2.~1946.11.), 과도기(1946.12.~1954.4.), 정착기(1954.5.~1975.8.), 완성기(1975.9.~1980.1.)로 설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⁵⁾ 이 과정에서는 장교의 계급장 문양이 정착기에 이르러 오늘날과 같은 금강석, 대나무 잎사귀, 별 문양으로 확정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각각의 문양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당대 기록을 중심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해군본부가 2013년 말에 해방 이후부터 '80년대 초반까지 생산해낸 복제사 관련 문서들을 보존하기 위해 제작한 예식복제기록물자료집(禮式服制記錄物資料集 : CD본)을 유용하게 활용할 것이다.⁶⁾

3) 金舜圭, 『韓國의 軍服飾發達史 II 現代篇』, 國防軍史研究所, 1998.

4) 백기인, 『建軍史』,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5) 각 시기의 구분은 김순규의 연구 성과를 참조하되 문양에 큰 변화가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설정하였고, 초창기·과도기·정착기·완성기라는 용어로 의미를 부여하였다.

6) 논지 전개와 주석 처리의 편의를 위해 CD본 자료집의 명칭을 잠정 『海軍禮式服制記錄物資料集』으로 명명하였다. 현재 이 자료집은 해군역사기록관리단이 별도의 명칭 없이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보존하고 있다(관리번호 : 14-D-전-000020).

이 글을 통해 해군 구성원들이 창군기 이래 장교의 계급장을 제정하기 위해 추진하였던 노력과 과정을 점검해 보고 각 계층별 문양이 상징하는 의미에 대해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해군장교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문양과 상징체계⁷⁾에 대한 이해와 연구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물론 궁극적으로 해군의 역사 발전에 대한 인식을 한차원 심화시켜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 초창기(1946.2.~1946.11.)

주지하듯이 현대적 개념의 해군장교 계급장은 해방 이후가 되어서야 등장한다. 대한제국(大韓帝國)이 근대식 해군 창설을 시도하던 19세기 말 ~ 20세기 초를 비롯하여⁸⁾ 국권을 침탈당한 일제강점기에는 장교의 지위를 나타내는 계급장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의 경우처럼 현대적 개념과 흡사한 계급 구조와 직제는 고종(高宗)이 근대 해군 창설을 추진하던 즈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1894년(고종 31) 12월 4일, 고종은 육군장관직제(陸軍將官職制)를 칙령 제10호로 반포하였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는 아래 내용의 해당 기사가 나온다.

칙령으로 짐이 육군장관직제(陸軍將官職制)를 재가하니 이에 따라 시행하라. 대장(大將)은 정·종1품계이고, 부장(副將)은 정2품계이며, 참장(參將)은 종2품계이고, 정령(正領)·부령(副領)·참령(參領)·정위(正尉) 이상은 3품계이다. 부위

- 7) 해군장교 정모휘장(正模徽章)을 소재로 문양사적인 차원에서 검토하여 의미를 부여한 성과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신성재, 「한국 해군장교 정모휘장의 변천과 그 함의」 『軍史』 94, 2015a; 신성재, 「해군장교 정모휘장의 변천과 역사적 의미」 『대한민국 해군 우리의 미래(해군창설 70주년 기념 특별전)』,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2015b 참조.
- 8) 대한제국기 근대식 사관 양성과 군함 확보 노력은 金在勝, 『近代韓英海洋交流史』, 仁濟大學校 出版部, 1997; 金在勝, 『韓國近代海軍創設史』, 해안, 2000; 심헌용, 『한말 군 근대화 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참조.

(副尉)·참위(參尉) 이상은 6품계이고, 정교(正校)·부교(副校)·참교(參校) 이상은 품계 외이다.⁹⁾

고종은 칙령을 통해 육군장관직제를 대장에서부터 참교에 이르기까지 계급을 구분하고 그에 상응하는 품계를 제정하였다. 이 때 반포된 직제는 무관의 최고 관등인 대장이 내각의 총리대신과 같은 정·종 1품 계까지 오를 수 있도록 크게 상향 조정한 점이 특징적이다. 이 같은 조치는 당시 무관의 위상이 크게 제고된 것을 의미한다.¹⁰⁾

무관의 위상 제고와 함께 주목해볼 점은 당시 반포된 직제가 해방 이후 해군이 창설되는 시기는 물론 오늘날의 해군 계급체계와 비교해볼 때 상당 부분 유사성이 발견된다고 하는 사실이다. 대장·부장·참장이 장관급 장교에 대응하고, 정령·부령·참령이 영관급 장교에 해당하며, 정위·부위·참위가 위관급에 해당하고, 정교·부교·참교가 하사관(부사관)에 해당하는¹¹⁾ 계급 구조는 이러한 유사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물론 인용한 사료는 육군의 장관직제 개정과 관련한 조칙으로 해군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체계에 입각한 계급 편성 방식은 해군의 직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해군 역시 육군의 장관직제와 유사한 계급체계를 활용하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선행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것처럼, 고종이 칙령을 통해 반포한 위 직제에 보이는 계급 중 일부는 해군이 창설되던 해방 직후의 시점에 다

9) 『承政院日記』 3053책(탈초본 139책), 고종 31년 12월 4일. “勅令 朕裁可陸軍將官 職制 使之遵行 大將正從一品階 副將正二品階 參將從二品階 正領副領參領正尉以上三品階 副尉參尉以上六品階 正校副校參校以上階外”. 『日省錄』 고종 31년 12월 4일에도 같은 내용이 나온다.

10) 서인한, 『대한제국의 군사제도』, 해안, 2000, 41~42쪽.

11) 칙령 반포 이듬해에 군인의 연령 제한을 정한 규정을 보면 대장부터 참위까지 연령을 언급한 다음 별도로 하사관(부사관)을 언급하고 있음이 주목된다(『高宗實錄』 권33, 고종 32년 4월 27일). 이 같은 계급 구조에서 보자면 정교·부교·참교는 하사관(부사관)에 해당한다.

시급 그 명칭이 등장한다. 손원일(孫元一)을 비롯한 해군 창설의 주역들은 1945년 11월 11일 해방병단(海防兵團)을 결성한 다음 이를 해안경비대로 발전시켜 나아갔다. 해방병단은 1946년 1월 15일에 총사령부를 진해기지에 설치하고, 이어서 인천기지에 사령부를 설치하는 등 확장 일로의 과정에 있었다.¹²⁾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해방병단 내에는 일원적인 계급체계가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였다. 해방병단 소속의 장교들에 대한 정식 계급 부여는 단원이 증가하고 기구가 확장되어가자 통수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에서 1946년 2월 1일부로 구한말시대(대한제국기)의 계급을 참고하여 부여하였다.¹³⁾ 이 때 단원들에게 부여된 장교의 계급은 참령, 정위, 부위, 참위 등이었다.¹⁴⁾ 해방병단을 창단한 손원일에게는 당시 최고 계급인 참령이 부여되었고, 초대 인천기지사령관이던 백진환(白鎭煥)에게는 정위의 계급이, 기타 나머지 장교들에게는 부위 및 참위의 계급이 부여되었다.¹⁵⁾ 이들에게 부여된 계급을 오늘날과 비교하면 소령, 대위, 중위, 소위에 해당한다.

계급이 부여됨에 따라 장교들이 사용할 계급장 제식 마련이 시급한 사안으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해방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해군의 제반 인사근무 여건은 열악하기 짝이 없었다.¹⁶⁾ 복제 규정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시점이었으므로 아직 적절한 형태의 계급장이 확정되지 못한 상태였다.¹⁷⁾ 이에 따라 해방병단은 국방사령부 관할하에

12) 백기인, 앞의 책, 2002, 292쪽.

13) 海軍本部, 『海軍 30年史 1945~1975』, 1978, 11쪽; 國防部, 『國防史 Ⅰ』,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1984, 309~31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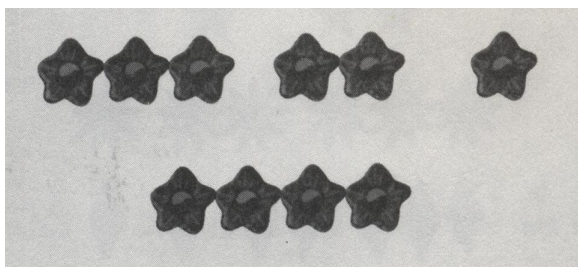
14) 金舜圭, 앞의 책, 1998, 336쪽.

15) 海軍本部 戰史編纂官室, 『大韓民國海軍史(行政篇)』 第1輯, 1954, 25~26쪽. 이후 1946년 6월 1일에 미 해군의 계급을 참고하여 사병의 계급을 兵曹長(상사)·上等兵曹(중사)·一等兵曹(하사)·二等兵曹(병장)·一等水兵(상등병)·二等水兵(이등병)·見習水兵(이등병) 등 7단계로 구분하여 계급을 부여하였다(海軍本部, 앞의 책, 1978, 11쪽).

16) 창군기 해군의 열악한 상황과 복제의 실상은 金省三, 「우리 海軍의 걸어온 길」 『海軍』 創刊號(제1권 1호), 1951, 29~30쪽; 박원규, 「海軍服制 變遷概要」 『海軍』 제272호, 海軍本部政訓監室, 1977, 151~153쪽; 신성재, 앞의 논문, 2015a, 250~252쪽 참조.

있던 경비국의 국립 경찰들이 사용하던 모자에 부착된 무궁화 문양 귀단추에 주목하였다. 그리하여 해방병단은 경찰이 사용하던 무궁화 문양의 귀단추를 모방하여 이를 임시적으로 차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¹⁸⁾ 당시 차용된 계급장 문양은 자료 ①에서 보는 바와 같다.¹⁹⁾ 활짝 핀 무궁화를 바탕으로 삼고 그 중앙에 태극 형상을 새겨 넣은 문양이었다.

<자료 ① : 초창기 계급장 문양(1946.2.1.~11.30.)>



무궁화와 태극을 문양으로 하는 이 계급장은 해방병단이 창설된 이듬해인 1946년 2월부터 장교들 사이에 임시적으로 사용되었다. 당시 최고의 계급이던 참령

계급장에는 태극이 새겨진 무궁화 문양 4개를 부착하였다. 그 아래의 정위·부위·참위에게는 각각 3~1개를 부착토록 하여 계급적 차이를 드러내도록 하였다.

1946년 2월 1일에 제정된 이 계급장 문양 제식은 동년 11월 30일까지, 그리 길지 않은 동안 사용되었다.²⁰⁾ 한국을 상징하는 무궁

17) 해군의 복제는 1952년 ‘해군복제규정시행안’이 공식적으로 마련됨으로써 비로소 통일된 복제를 갖게 된다(백기인, 앞의 책, 2002, 296쪽).

18) 金舜圭, 앞의 책, 1998, 173쪽; 백기인, 앞의 책, 2002, 282~283쪽.

19) 金舜圭, 앞의 책, 1998, 337쪽.

20) 김순규는 1946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된 계급장에 대해 자료 ①을 제시하고 있다(김순규, 앞의 책, 1998, 337쪽). 그러나 문양을 설명하는 부분(336쪽)을 보면, “이 계급장들의 제식은 미 해군 준위 계급장인 가로 1.5cm × 세로 4.5cm의 황금색 구형(矩形 : 사각형 모양) 금속 바탕 중앙에 태극 무늬를 넣은 것”으로 서술하고 있어 자료 ①에서 제시한 무궁화 바탕에 태극을 넣은 문양과 차이가 발생한다. 사실 김순규가 설명한 문양의 계급장은 육군장교들이 1946년 4월 6일부터 임시적으로 사용하던 것이었다(173~174쪽). 해군장교와 육군장교의 계급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떤 착오가 있었기에 제시한 자료 ①의 문양과 서술

화와²¹⁾ 태극으로 문양을 구성한 점에서 당시 계급장에는 해방병단의 국가적 정체성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동시에 타 기관이 사용하던 문양을 모방하였던 점에서 독자적인 수준의 계급장을 제정하지 못한 문양사적 한계 또한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초창기 해군장교의 계급장은 정연한 계급체계가 성립하여 그에 걸맞는 문양의 계급장이 등장하기까지는 한시적이며 임시적인 성격을 띠었던 것으로 그 문양사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3. 과도기(1946.12.~1954.4.)

1946년 2월 초부터 사용된 해군장교 계급장은 약 10개월 정도 존속되다가 이전과는 다른 문양으로 변경되었다. 그 이유는 당시 사용되던 국군 장교의 계급 호칭이 대한제국기에 사용하던 그것과 같아 시대적인 감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기 때문이었다.²²⁾ 이에 따라 1946년 12월 1일부로 해군장교 계급체계에 대한 정비 작업이 이루어졌다. 새롭게 제정된 계급체계는 위관급 장교는 대위·중위·소위·준위로 하고, 영관급 장교는 대령·중령·소령으로 하며, 영관급 상위에 장관급 장교의 계급으로 대장·중장·소장·준장을 추가하였다.²³⁾ 이는 미군의 계급제도를 참작해서 체계화한 것이었다.²⁴⁾

상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글에서는 자료 ①에 근간하여 무궁화와 태극이 초창기 해군장교 계급장 문양으로 사용된 것으로 잠정 서술하였다.

21) 무궁화(근화)가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국화로 제정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역사적으로 한민족과 오랫동안 함께 해온 꽃으로서 대한제국기가 되면 국가의 꽃으로 부각된다(이경미, 『제복의 탄생 - 대한제국 서구식 문관대례복의 성립과 변천』, 민속원, 2012, 227~23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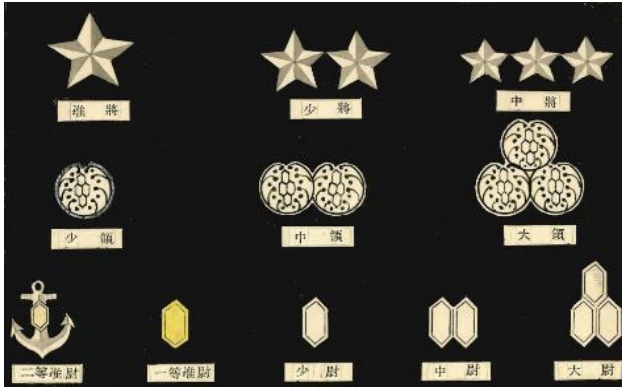
22) 金舜圭, 앞의 책, 1998, 336쪽.

23) 金舜圭, 앞의 책, 1998, 336~337쪽.

24) 오진근·임성채, 『해군창설의 주역 손원일 제독[상]』,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6,

장교의 계급이 세분화되고 계급체계가 새롭게 정비됨에 따라 계급장의 문양에도 변화가 수반되었다. 당시 개정된 계급장의 문양을 제시하면 자료 ②와 같다.

<자료 ② : 과도기의 계급장 문양 도안(1952.10.19.)>



자료 ②는 당시 새롭게 개정된 계급장의 문양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 자료는 해군예식복제기록물자료집(CD본)에 수록된 것으로 작성된 시점은 1952년 10월 19일자로 기록되어 있다.²⁵⁾ 이와 같은 문양의 계급장 도안이 나타나는 시점에 주목해보자면 적어도 1950년으로 접어들면서 해군장교의 계급장 문양에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런데 계급장이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된 시점과 사용된 시기에 대해서는 김순규의 연구를 통해 일찍이 밝혀진 바 있다. 즉 그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계급장은 1946년 12월 1일부로 개정되어 1954년 5월

108쪽.

25) 「海軍服制規定案表」 『海軍禮式服制記錄物資料集』, 4285년 10월 19일 작성. 작성한 <해군복제규정안표>의 다음 페이지부터 장교모자 치양, 장교모표, 사관모자 카바, 외투 등 당시 개정을 추진하던 복제품 관련 전 품목이 그림으로 상세하게 그려져 첨부되어 있다.

초까지 사용되었다고 한다.²⁶⁾ 그는 계급장이 사용된 시기를 서술함과 동시에 개정된 문양을 그림 자료로 제시하였는데, 현대적으로 채색하여 알기 쉽도록 재현하였을 뿐 그 문양은 1952년 10월 19일자(자료 ②)의 도안과 완전히 일치한다.²⁷⁾ 계급체계도 동일하게 서술되어 있다. 장관급 계급에 중장·소장·준장이 있고, 영관급 계급에 대령·중령·소령이, 위관급 계급에는 대위·중위·소위·준위가 있다.²⁸⁾ 이 같은 사실은 김순규가 해군장교 계급장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1952년 10월 19일자로 작성된 자료 ②를 활용하였음을 짐작케한다.²⁹⁾

해군장교들이 자료 ②와 동일한 문양의 계급장을 사용하였음은 해군사관학교 졸업앨범에 남아 있는 사진 자료를 통하여 사실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자료 ③). 좌측부터 2명은 해사 3기생 졸업 앨범에 수록된 병기관 이우용 대위와 측기교관 박기정 중위의 사진이다.³⁰⁾ 해사 3기생의 졸업 일자가 1950년 2월 25일이었으므로³¹⁾ 이들이 촬영된 시점은 그 이전이었을 것이다. 이들의 상의 옷깃 좌우에는 대위와 중위 계급을 나타내는 ㉠이 계급장 문양으로 새겨져 3~2개씩 부착되어 있다. 맨 우측의 사진은 해사 5기생 졸업 앨범에 수록된 수학실장 김병수 중령의 모습이다.³²⁾ 5기생이 졸업한 일자가 1952년 3월 2

26) 金舜圭, 앞의 책, 1998, 336~337쪽; 백기인, 앞의 책, 2002, 282~295쪽.

27) 金舜圭, 앞의 책, 1998, 338쪽 <해군 계급장(1946년 12월 1일~1954년 5월)>. 자료 ②와 다른 점은 각각의 문양 하단에 계급이 기록되지 않은 점이다.

28) 김순규의 저서에는 개정된 계급에 대장이 포함되어 있고, 위관급의 준위는 일등준위와 이등준위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주 23]과 같음]. 그러나 자료 ②에는 대장 계급장이 존재하지 않고, 준위는 일등준위와 이등준위로 구분되어 있다. 대장 계급장의 누락은 실제 대장으로 진급되었던 장교가 부채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지며, 준위 계급장은 1950년대로 접어들면서 일등준위와 이등준위로 세분화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29) 당시 일등준위의 계급장이 금색인 점을 제외하고 개정된 계급장은 모두 은색이었다. 계급장의 규격은 영관급은 직경 2cm. 위관급은 가로 1cm × 세로 2cm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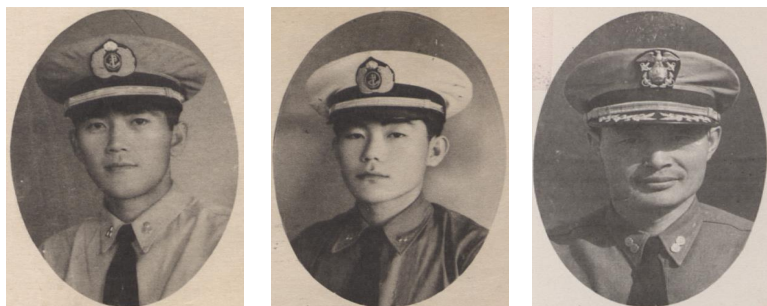
30) 『해군사관학교 3기생 앨범집』 참조.

31) 『부대역사자료』 1권(1946.1.1.~1980.12.31.), 해군사관학교, 15쪽.

32) 『해군사관학교 5기생 앨범집』 참조.

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³³⁾ 김병수 중령의 사진 역시 그 이전에 촬영되었을 것이다. 김병수 중령의 근무복 상의에도 자료 ②에 보이는 것과 동일한 문양의 계급장이 부착되어 있다.

<자료 ③ : 과도기 계급장을 부착한 해군장교의 사진>



앞서 제시한 자료 ②·③에 근거하여 1946년 12월부터 1954년 5월까지 사용된 해군장교 계급장에 대해 문양사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장관급 장교의 계급장은 별을 문양으로 하여 그 개수에 따라 계급의 고하를 표시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전해져오던 한국의 고유한 문양을 반영한 것이 아닌 당시 해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던 미 해군이 사용하던 별 문양을 차용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영관급 장교의 계급장은 등근 원판에 점과 실선을 연결하는 곡선 무늬를 새기고 그 중앙에 위관급 장교의 계급장 문양으로 사용된 ①를 작게 축소하여 안착시킨 형상이다. 이는 영관급 장교의 계급장이 위관급 장교의 문양을 토대로 삼았음을 일러준다. 위관급 장교를 상징하는 계급장 문양(①)이 무엇을 형상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해군본부가 1952년 11월 28일자로 국방부에 보고하기 위해 기안한 ‘해군복제규정안’의 계급(약)장 착용 및 제작 규정을 보면, “은색 금속지로서 각 계급에 따라 우측

33) 『부대역사자료』 1권(1946.1.1.~1980.12.31.), 해군사관학교, 19쪽.

옷깃에 단다. 일등준위(一准)는 금색 금속지로 하고, 이등준위(二准)는 은색 금속지 앵커 중앙에 금색 귀갑형(龜甲形)을 배(配)한다.”³⁴⁾고 명기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 같은 사실은 위관과 영관급 장교의 계급장으로 사용된 문양이 거복선의 지봉을 보호하는 갑옷, 즉 귀갑(龜甲)을 형상화하여 만든 문양이었음을 말해준다.³⁵⁾

한편 귀갑 문양은 사관생도들의 급생(학년)³⁶⁾을 표시하는 문양으로도 사용되었다. 1급생은 닷 위의 원형관 중앙에 4개의 귀갑을, 2급생은 닷 위에 3개를, 3급생은 2개를, 4급생은 1개를 새겨넣은 문양이었다.³⁷⁾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문양의 명칭이 벤젠으로도 기록되고 불리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문서를 취급하던 행정 담당자들이 편의적으로 사용하던 것일 뿐 본래의 명칭은 귀갑이었다.

해군본부가 1956년 3월 20일자로 시달한 공문서에 수록된 사관생도의 약장(略章) 설명 부분을 보면(자료 ④), “금속표(金屬表) 도금으로 한다. 귀갑(龜甲)은 은색, 앵커는 금색으로 한다.”³⁸⁾고 규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약장 설명과 함께 급생별로 부착하는 약장의 문양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문양은 확실히 거복선의 지봉을 덮고 있는 갑옷을 철조각으로 형상화한 문양이다. 자료 ④에는 사관생도의 급생을 구분하는 약장 문양으로 귀갑이 선명하게 표현되어 있다.³⁹⁾

34) 「海軍服制規定‘案’提出의 件」 『海軍禮式服制記錄物資料集』, 해본한 제2489호 (4285년 11월 28일 기안).

35) 이런 점에서 영관급 장교의 계급장 문양은 거복선의 지봉(덧개) 전체를 형상화한 것으로도 보여진다. 등근 원관에 귀갑 4개, 점과 실선을 연결한 문양은 거복선 지봉의 전체적인 문양과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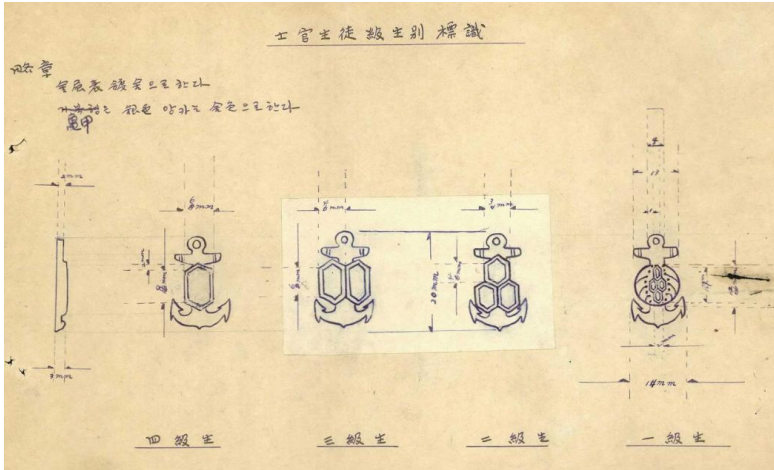
36) 당시에는 학년이 아닌 급생으로 표기하였다. 1급생은 오늘날의 4학년, 2급생은 3학년, 3급생은 2학년, 4급생은 1학년이었다.

37) 「사관생도 복제규정 송부 의뢰 “회신”」 『海軍禮式服制記錄物資料集』, 해사발 제 667호, 4292년 5월 29일.

38) 「海軍禮式服制 委員會 決議事項 報告의 件」 『海軍禮式服制記錄物資料集』, 業務連絡(4289년 3월 20일).

39) 주 38)과 같음. 귀갑이 사관생도의 급생(학년)을 표시하는 문양으로 사용된 배경에 대해서는 1954년 5월에 육군장교의 위관 및 영관급 계급장이 금강석과 대나무 잎

<자료 ④ : 사관생도 급생별 표지(1956.3.20.)>



자료 ④는 귀갑이 벤젠의 화학식 기호와 흡사한 형상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호칭으로 불리어졌던 사정을 적절히 설명해준다.⁴⁰⁾ 뿐만 아니라, 거북선을 보호하는 갑옷을 형상화한 귀갑 문양이 영관 및 위관급 장교의 계급장에 사용되었던 이유 또한 일깨워준다. 아마도 그 이유는 귀갑이 거북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듯이, 귀갑 문양의 계급장을 패용하는 장교들 또한 해양을 수호하는 존재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해군장교들이 충무공 이순신의 후예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짐작된다.⁴¹⁾

사귀로 통일됨에 따라 충무공 이순신을 상징하는 고유한 문양이 사라지게 될 상황이 되자 이를 계승하기 위한 차원에서 사용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 40) 벤젠(방향족 탄화수소)의 화학식 기호는 귀갑의 문양과 아주 흡사하다.
- 41) 귀갑 문양의 사용 배경에 어떠한 역사적인 연원이 내재한 것인지 현전하는 기록상 확신하기 어렵다. 다만 흥미로운 사실은 통일신라시대의 유물인 귀부에(경주 서약동 소재) 보이는 기하학적 문양이 일부 유사하다는 점이다. 아울러 특히 주목되는 것은 고려 초기 여주에 건립된 고달사지에 남아 있는 원종대사탑비의 귀부이다. 이 귀부에는 귀갑 문양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는데, 자료 ②·④의 문양과 동일하다. 영관 및 위관급 장교의 계급장 문양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통 시대 이래의 문양을 고려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우나, 개연성 또한 완전히 배

과도기적 단계의 영관 및 위관급 장교 계급장에 귀갑 문양이 반영된 것은 충무공 이순신을 근간으로 하는 해군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도 이해된다. 비록 장관급 장교의 계급장은 세계 해군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별 문양을 차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위관과 영관급 장교의 그것 만큼은 귀갑 문양으로 제작하였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계급장은 자주적이며 독자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하겠다.

4. 정착기(1954.5.~1975.8.)

1946년 12월 1일 계급체계의 변화와 더불어 개정된 해군장교 계급장은 1948년 정부 수립기를 거쳐 6·25 전쟁기는 물론 전쟁이 종료된 이후로도 널리 사용되었다. 전쟁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었던 만큼 당시 해군장교들은 전투복 위주의 복장을 착용하고 생활하였다. 그러나 전쟁 이후 안정화의 시기를 거치면서 정복과 예복을 착용하는 빈도가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자연스럽게 정복에 어울리는 문양의 계급장이 요구되어졌다.⁴²⁾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국방부가 그동안 각 군이 독자적으로 사용해오던 계급장을 3군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국군계급장’으로 개정하고자 하였기 때문이었다. 아래 자료에는 그러한 사정이 잘 반영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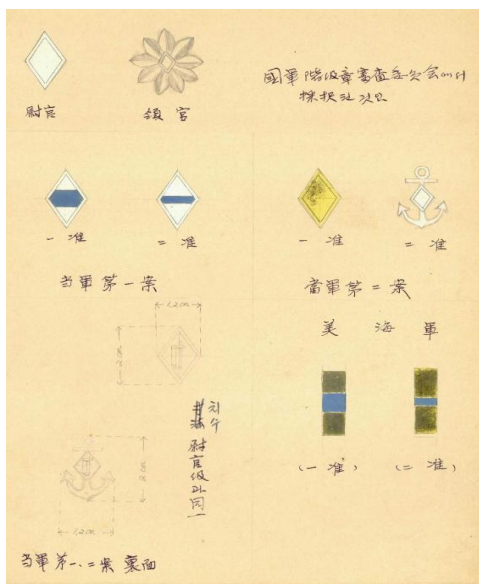
금번 국군장교 계급장 심사위원회에서는 소위로부터 대령까지만을 채택하고, 준위는 각 군별로 위관급 계급장에 준하여 개정기로 되어 별지와 같이 도안하였으니 오는 7월 1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것. 따라서 본안보다 더 좋은 창안이 있으면 첨부할 것임.⁴³⁾

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차후 검토해볼 생각이다.

42) 金舜圭, 앞의 책, 1998, 337쪽.

위 자료는 해군본부 인사국장(人事局長)이 동 소속의 고급부관(高級副官)에게 1953년 7월 11일자로 준위 계급장 개정과 관련하여 업무 연락차 발송한 의견서에 포함된 내용으로 당시 계급장을 개정하고자 하던 이유와 개정 방향이 반영되어 있다.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국방부가 계급장 개정을 추진한 이유는 3군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국군계급장을 제정하기 위함이었다. 제정의 핵심은 장관급 계급장은 각 군이 별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그대로 두되, 영관과 위관급의 문양을 통일하는 것에 집중되었다. 준위 계급장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각 군별로 위관급의 계급장에 준하여 자율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자료 ⑤ 계급장 문양 도안(1953.7.11.)>



국방부가 이 같은 방침을 정하자 해군에서는 일등준위와 이등준위의 계급장 개정안 2개를 놓고 해군본부 소속의 주요 부서와 예하 부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였다. 결과는 위관급의 소위 계급장과 동일하게 금강석을 문양으로 하되 계급장의 색상은 백색으로 하고 그 중앙에 두께가 다른 청색의 일자형 줄무늬를 삽입하여 계급적 차이를 구분하는 1안이 채택되었다.⁴⁴⁾

영관 및 위관급 장교의 계급장은 국군장교 계급장 심사위원회에서

43) 「會報 掲載 依頼의 件」 『海軍禮式服制記錄物資料集』, 業務連絡(4286년 7월 11일).

44) 주 43)과 같음. 당시 부서별 종합된 준위 계급장 신규 채택 의견서 결과는 「准尉階級章(略章) 改正의 件」 『海軍禮式服制記錄物資料集』 참조.

이미 결정된 상태였다. 당시 채택된 영관 및 위관급 장교의 계급장 문양은 자료 ⑤의 도안과 같다.⁴⁵⁾ 영관 및 위관급 장교의 계급장 문양이 이미 채택된 것은 국방부가 이전 시기부터 계급장을 개정하기 위해 국군장교 계급장 심사위원회를 조직하여 공모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개정 활동을 전개하였기 때문이었다. 국군장교 계급장 심사위원회는 1953년 5월 1일에 계급장 견본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여 등위별 우수작을 의결하였다. 의결된 결과는 동년 5월 20일에 대내외적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당시 심의위원회에서 1등으로 선정된 계급장 견본은 부산시 충무로 4가 5번지에 거주하던 접수번호 573번의 이동훈(李童勳)⁴⁶⁾이 제출한 견본이었다. 2등과 3등은 마땅한 작품이 없었기에 선정되지 않았고, 가작으로는 10명이 선정되었다.⁴⁷⁾

1등으로 선정된 이동훈의 계급장 견본은 기존과는 다른 문양이었다. 위관급은 능형의 금강석을 문양으로 하여 그 수에 따라 계급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영관급은 밀바탕이 되는 문양을 대나무 잎사귀로 하고, 그 중앙에는 위관급 문양으로 사용되는 금강석을 반영하였다. 그 문양은 대나무 잎사귀 9개를 원형의 꽃무늬 형상으로 배열하여 바탕을 만들고 그 중앙에 작게 축소시킨 금강석 1개를 배치하는 것으로 하였다.⁴⁸⁾ 당시 견본으로 도안된 영관 및 위관급 장교의 계급장 문양을 제시하면 자료 ⑥과 같다.⁴⁹⁾

45) 주 43)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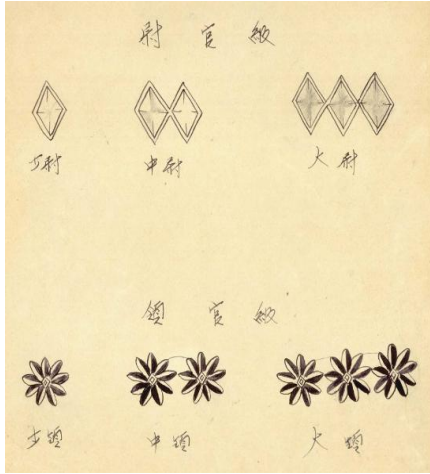
46) 견본 1등에 당선된 이동훈은 이후 해군본부가 1950년대 중반에 추진하던 장교모표 개정 작업에도 응모하였던 것 같다. 같은 이름의 한자와 거주 지역이 부산으로 동일한 이동훈이 장교모표 개정에도 지원하였던 사실이 이를 추정케한다. 이동훈은 장교모표 개정 공모전에 응모하여 가작을 수상하였다(신성재, 앞의 논문, 2015a, 266~267쪽).

47) 「國軍將校 階級章 審査 結果의 件」 『海軍禮式服制記錄物資料集』, 해군한 제1894호(4286년 7월 26일).

48) 영관급 계급장 문양에 위관급의 금강석 문양이 반영된 것은 과도기적 단계에서 위관의 귀갑 문양이 영관장교의 계급장에 반영된 것과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49) 주 43)과 같음.

<자료 ⑥ : 영관·위관급 계급장 문양 도안>



새롭게 도안된 계급장 문양에는 특별한 의미가 반영된 것이었다. 우선 총체적인 의미로서 자연계의 현상에 존재하는 사물을 계급을 나타내는 상징 문양으로 삼았다.⁵⁰⁾ 위관급의 계급장은 금강석을 소재로 삼았고, 영관급은 대나무 잎사귀(竹葉)를, 장관급의 경우에는 창공에 떠 있는 별을 소재로 하였다. 각 계층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선정된 이 소재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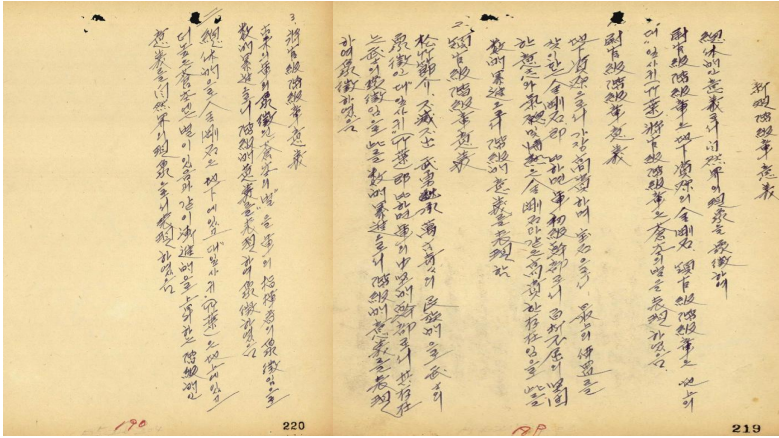
금강석이 지하에 있고, 대나무는 지상에 있으며, 더 높은 창공에 별이 위치하고 있다. 공간적 위치를 고려한 이 같은 계층별 계급장 문양 구성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계급적인 의미를 자연계의 현상을 빌어 표현한 것이었다. 즉 우주공간의 천체로서 지하(위관), 지상(영관), 창공(장관)의 위계적 질서와 층위를 표현한 것이었다.⁵¹⁾ 새로이 개정된 계급장의 의의를 설명한 당대 기록을 제시하면 자료 ⑦과 같다.⁵²⁾

50) 이하 개정된 신규 계급장에 반영된 문양사적 의미는 주 47) 문서 참조.

51) 金舜圭, 앞의 책, 1998, 176쪽.

52) 주 47)과 같음.

<자료 ⑦ : 신규 계급장의 의의(1953.7.26.)>



총체적인 의미 부여와 함께 각 계층별 계급장에도 보다 구체적인 의미가 부여되었다. 위관급 장교의 계급장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부여되었다.

위관급 계급장 의의. 지하 자원으로서 가장 고귀하며 보석(寶石)으로서 최상의 가치를 차지하는 금강석(金剛石), 즉 비유하면 굳 초급 간부로서 백折不屈(百折不屈)의 견고한 의지(意志)와 기백(氣魄) 및 정열(情熱)은 금강석과 같은 고귀한 존재이므로 이를 수적(數的) 누진(累進)으로서 계급적인 의의를 표현함.⁵³⁾

위관급 장교는 굳을 이끄는 초급 간부로서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견고한 의지와 기백 및 정열을 가진 존재이기에 지하 자원 중에서 가장 고귀한 보석이자 최상의 가치를 지닌 금강석에 비유하여 이를 계급장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삼았다.

영관급 장교의 계급장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부여하였다.

53) 주 47)과 같음.

영관급 계급장 의의. 소나무와 대나무(松竹)의 절개는 불멸(不滅)·불출(不出)하고 무용(武勇)을 계승함은 만고(萬古)의 청청(靑靑)함이니 민족적으로 무사(武士)의 상징인 ‘대잎사귀(竹葉)’, 즉 비유하자면 군의 중견적(中堅的) 간부로서 그 존재는 무사의 상징이므로 이를 수적(數的) 누진(累進)으로서 계급적 의의를 표현하여 상징하였음.⁵⁴⁾

영관급 장교는 송죽(松竹)의 절개를 지닌 불멸불출의 영원한 존재이자 군의 중견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간부라는 사실에 주목하여 민족사적으로 무사를 상징하는 대나무 잎사귀에 비유하여 이를 계급장의 상징적인 문양으로 삼았다.

장관급 장교의 계급장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반영된 것이었다.

장관급 계급장 의의. 고래의 군의 상징인 창공(蒼空)의 별은 군의 지휘자의 상징이므로 수적(數的) 누진(累進)으로서 계급적 의의를 표현하여 상징하였음.

장관급 장교는 과거로부터 군을 상징하는 것이 창공의 별이었으므로 군을 지휘하는 상징적 문양은 곧 별이 된다.⁵⁵⁾ 따라서 장관급 장교는 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는 존재이므로 별을 그 핵심 문양으로 삼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당시 3군에 통일적으로 제정된 계급장은 지하-지상-창공으로 이어지는 자연계 현상의 위계적 질서를 반영하여 그 지위 고하를 표현하였다. 또한 각 계급장은 자연에서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소재인 금강석과 대나무 잎사귀, 별을 소재로 하여 문양을 제작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였다. 초급 간부인 위관급에는 백전불굴의 기상과 의지를 상징적인 의미로 반영하였고, 중견 간부인 영관급에는 불멸불출과 만고청청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장관급에는 고래의 군을 상징하는 지휘관의 의미를 반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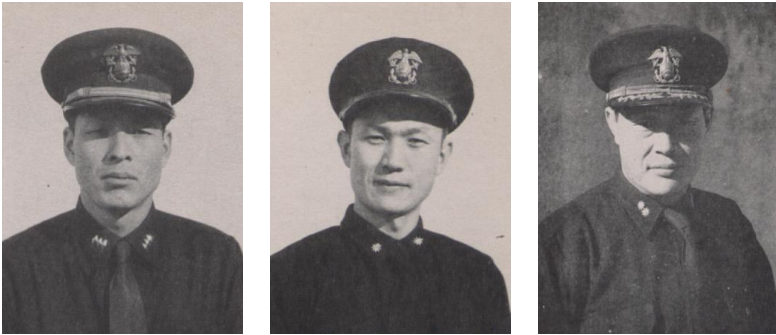
54) 주 47)과 같음.

55) 물론 별은 전통적인 문양이라기보다는 미국 등 서구의 영향을 받은 문양이다.

3군 통일형 계급장이 제정됨에 따라 영관 및 위관급 장교들 사이에서 사용되어온 귀갑을 특징으로 하는 해군 고유의 계급장 문양은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금강석과 대나무 잎사귀를 소재로 하는 문양이 대신하게 되었다. 정착기에 나타나는 이러한 변화는 해군의 고유한 문양이 반영된 체제에서 3군 공통의 통일된 문양 체제로 새롭게 정착되어가던 사정을 반영한다.

3군 통일형 계급장으로 공식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1954년 5월 15일이었다.⁵⁶⁾ 앞서 제시한 금강석과 대나무 잎사귀 문양으로 제작되었고, 그 규격은 영관은 지름 2cm, 위관은 세로 2cm×가로 1cm로 하였다.⁵⁷⁾ 개정된 통일형 계급장이 사용되었음은 자료 ⑧을 통해 실질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자료 ⑧ : 3군 통일형 계급장을 부착한 사진(1950년대 중반)>



자료 ⑧은 1955년 4월 7일에 졸업한⁵⁸⁾ 해사 9기생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교수들의 사진이다.⁵⁹⁾ 좌측부터 당시 선박의 기관(박용기관) 교육을 담당하였던 박창성 대위, 수학 교육을 담당하였던 이용두 소령, 역시 수학을 교육한 김병수 중령의 모습이다. 이들의 근무복 상의 깃에

56) 金舜圭, 앞의 책, 1998, 337쪽.

57) 金舜圭, 앞의 책, 1998, 338쪽.

58) 『부대역사자료』 1권(1946.1.1.~1980.12.31.), 해군사관학교, 27쪽.

59) 『해군사관학교 9기생 앨범집』 참조.

부착된 계급장에 유의해보자. 이 문양은 1954년 5월에 새롭게 개정된 계급장의 문양이다. 사진 상태가 다소 흐릿하지만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계급장은 금강석과 대나무 잎사귀를 소재로 하여 제작된 것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새롭게 개정된 통일형 계급장은 장교들을 대상으로 널리 사용되어졌다. 그러나 영관급 장교의 계급장은 부착 요령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여 올바르게 부착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⁶⁰⁾ 이를 통일하기 위한 후속 작업이 추진되었다. 즉 해군본부는 “영관급 계급장 부착 방법에 있어 상하를 반대로 부착하는 사례가 있으니 다음과 같이 부착함이 정식이니 착오가 없도록 주의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예하부대 전 반에 시달하였다.⁶¹⁾

개정된 계급장은 1960년 초까지 그대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계급장을 정복의 건장에 부착하였을 경우 규격이 작아 식별이 곤란한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1961년 7월 1일부로 그 크기를 조정하게 되었다.⁶²⁾ 새롭게 크기가 상향 조정된 건장은 정장(正章)으로 명명되었고, 그동안 사용하던 작은 크기의 계급장은 약장(略章)으로 호칭되었다. 당시 정장용 계급장 크기는 영관급의 경우 직경 3cm였고, 위관급은 세로 3cm×가로 1.5cm였다.⁶³⁾

60) 「국군장교 신규 계급장 부착 요령에 관한 건」 『海軍禮式服制記錄物資料集』, 해본 경리발 제 924호(4287년 7월 5일).

61) 「영관급 계급장 부착에 관한 건」 『海軍禮式服制記錄物資料集』, 해본발 제1497호·해본고부발 제279호(4287년 7월 6일).

62) 金舜圭, 위의 책, 1998, 337쪽.

63) 위와 같음.

5. 완성기(1975.9.~1980.1.)

1950년대 중반에 정착된 금강석과 대나무 잎사귀, 별을 문양으로 하는 계급장은 1970년대 중반까지 별다른 변화없이 유지되었다. 이에 대한 보완적 차원에서의 변화는 1975년 후반기로 들어서면서부터 발생하였다. 1975년 9월 27일, 국방부는 장관급 장교의 계급장에 대한 군인 복제 개정령을 공포하였다. “군인 복제 개정령이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군인 복제 부칙 규정에 의하여 1975년 9월 29일을 기하여 장군의 신 계급장 부착을 지시하니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할 것.”⁶⁴⁾ 이는 9월 30일자 대통령령 7837호의 ‘군인복제 일부 개정’으로 최종 시달되었다.⁶⁵⁾

국방부가 장관급 장교의 계급장을 개정한 것은 그동안 사용해온 계급장 문양이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계급장과 동일하여 고유성이 부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⁶⁶⁾ 이에 따라 개정된 계급장은 장관급 장교를 상징하는 별 형상은 그대로 사용하는 한편, 그 아래에 활짝 핀 무궁화 1개와 무궁화 잎사귀 6개를 추가함으로써 한국의 장관급 장교라는 문양적인 특징이 드러나도록 하였다. 개정된 장관급 장교의 계급장 문양은 자료 ㉠와 같다.⁶⁷⁾

64) 「군인 복제 개정령 공포」 『海軍禮式服制記錄物資料集』, 인근 203.1-164호(1975년 9월 27일); 「군인 복제 개정령 공포」 『海軍禮式服制記錄物資料集』, 해본인근 244-5537호(1975년 9월 27일).

65) 「군인복제」(대통령령 7837호, 일부 개정 1975.9.30.).

66) 金舜圭, 앞의 책, 1998, 337쪽.

67) 「복제 일부 제정 및 개정 시달」 『海軍禮式服制記錄物資料集』, 해본인근 244-4938호(1975년 8월 28일).

<자료 ⑨ : 장관급 계급장 개정 문양(1975.8.28.)>

대 가라장성 계급장 및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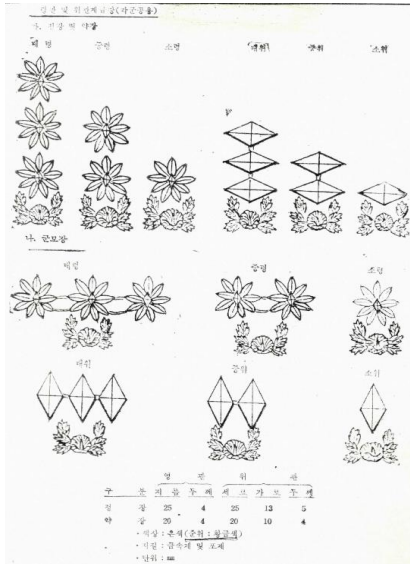
구분	제 식	비 고
장성계급장 (장성, 2구분 전투복용)		1. 별에 무궁화 보결 추가 2. 직결 전투복: 은색 자수체 기 타: 은색 절제
장성 전투모계급장		1. 별에 무궁화 보결 추가 준장: 무궁화 1개, 무궁화 잎 6개 소장: " 1개, " 6개 중장: " 1개, " 6개 대장: " 1개, " 6개 꽃 날오리 2개 2. 직결: 은백색 자수체

장관급 장교의 계급장에 무궁화와 무궁화 잎사귀가 추가된 것은 해군장교의 계급장 문양이 한국적인 특징을 반영하는 완성된 체제로 나아가는데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해군장교의 계급장은 과도기에 독특한 형상으로 제작된 귀갑이 영관 및 위관급 장교의 문양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는 정착기에 들어와서 3군 공통의 대나무 잎사귀와 금강석 문양으로 대체되었다. 이 같은 변화는 일부 계급장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해군이 고유하게 사용해오던 문양이 사라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해야 할 사실은 귀갑을 대신하여 새롭게 채택된 대나무 잎사귀와 금강석을 소재로 하는 계급장 역시 매우 독창적인 문양이라는 점이다.

개정된 영관 및 위관급 장교의 계급장 문양이 한국군의 독창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에 비해 장관급 장교의 그것은 미군이 사용하던 계급장과 차이가 없었다. 결국 장관급 장교 계급장의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목된 것이었다. 이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자, 그 해결 방안은 한국을 상징하는 문양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었다. 즉 장관급 장교의 계급장에 무궁화와 무궁화 잎사귀 형상을 추가함으로써 타국과 차별성을 드러내는 한국 해군을 상징하는 문양체제를 갖추도록 하였다.

장관급 장교의 계급장에 한국적 특징을 나타내는 문양이 추가된 뒤, 영관 및 위관급 장교의 계급장에도 이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 작업이 추진되었다. “장관급 장교가 사용하던 계급장과 같은 문양의 무궁화 받침을 전 장교를 대상으로 사용토록 하여 일원화를 기하고자 한다”는 1980년 10월의 공문서 기록이 이를 말해준다.⁶⁸⁾ 당시 영관 및 위관급 계급장에 무궁화와 무궁화 잎사귀 문양을 반영하고자 하였던 것은 전 계급장을 일관성 있는 체제로 통일하기 위한 것이었다.

<자료 ⑩ : 3군 공통의 영관 및 위관급 장교 계급장(1980.4.16.)>



이에 따라 군인 복제령 중 일부가 대통령령 제9713호('80.1.10.)로 개정되었다.⁶⁹⁾ 개정의 핵심 내용은 영관 및 위관급 장교의 계급장에도 장관급 장교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무궁화와 무궁화 잎사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로써 해군장교의 전 계급장에는 무궁화와 무궁화 잎사귀 문양이 모두 반영되어지게 되었다. 무궁화 문양이 반영된 3군 공통의 영관 및 위관급 장교의 계급장 도안을 제시하면 자료 ⑩과 같다.⁷⁰⁾

68) 「장교 계급장 소요 판단 자료 제출」 『海軍禮式服制記錄物資料集』, 인근 203.2-50호(1979년 10월 17일); 「장교 계급장 소요 판단 자료 제출」 『海軍禮式服制記錄物資料集』, 해본인근 244-9252호(1979년 10월 25일). 당시 준위부터 대령까지(8,472명) 소요 판단된 수량은 예비량을 포함하여 총 84,720개였다.

69) 「군인복제」(대통령령 제9713호, 일부 개정 1980.1.9.). 당시에 작성된 공문서에는 1월 10일로 나오지만, 해당 대통령령을 보면 1월 9일로 기록되어 있다.

70) 「개정된 장교 계급장 부착요령 시달」 『海軍禮式服制記錄物資料集』, 해본인근

한국을 상징하는 무궁화와 무궁화 잎사귀가 모든 장교의 계급장에 공통적인 문양으로 반영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해군이 어느 국가에 소속되었는가 하는 국가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었다. 이는 이전 시기에 사용하던 계급장과 비교하여 통일된 문양으로 일원화되었음은 물론 보다 완성된 형태의 해군장교 계급장 문양체제가 확립되어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⁷¹⁾ 결국 이 시기에 최종적으로 완성된 장교의 계급장 문양체제는 오늘날까지도 변함없이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해군장교와 국군장교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핵심적인 문양으로 자리하고 있다.

6. 맺음말

계급장은 군복이나 군모 등에 부착하여 군인의 지위나 계급을 나타내는 표지장을 말한다. 이 글에서는 군인의 지위를 나타내는 계급장 중 특별히 금속형 계급장에 주목하여 그 변천 과정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 결과 해군장교 계급장은 해군이 창설되던 해방 직후의 초창기를 시작으로, 과도기, 정착기를 거쳐 완성기에 이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각 시기별로 나타나는 계급장의 문양과 그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초창기에 사용된 계급장은 활짝 핀 무궁화를 바탕으로 그 중앙에 태극 형상이 새겨진 문양이었다. 이 계급장은 이듬해인 1946년 2월 1일부터 동년 11월 30일까지 그리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사용되었다. 이

244-5447호(1980년 4월 16일).

71) 개정된 계급장은 1980년 7월 1일부터 전 장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위와 같음); 「개정 장교 계급장 보급 방침」 『海軍禮式服制記錄物資集』, 국방부 물자 952.3-481호(1980년 3월 25일).

문양은 국방사령부 경비국 소속 경찰들이 사용하던 모자의 귀단추를 임시적으로 차용한 것이었다. 무궁화와 태극을 문양으로 사용한 점에서 해군의 국가적 소속과 존재적 의미를 반영한 것이지만, 타 기관에서 사용하던 문양을 차용한 점에서 독자적인 계급장을 제정하지 못했던 시대적 한계 또한 내포한 것이었다.

과도기에 사용된 계급장은 미 해군의 영향을 받은 별 문양과 더불어 한국 해군장교임을 상징하는 귀갑 문양이 반영된 독특한 특징을 보인다. 별 문양은 장관급 장교의 계급장으로 사용되었고, 귀갑은 영관 및 위관급 장교의 계급장으로 사용되었다. 사용된 기간은 1946년 12월부터 1954년 4월까지였다. 영관 및 위관급 장교의 계급장으로 사용된 귀갑은 거북선의 지붕을 보호하는 갑옷을 형상화하여 만든 문양이었다. 귀갑이 해군장교의 계급장 소재로 사용된 것은 이를 문양화하여 해군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 해군이 충무공 이순신의 후예라는 의미를 귀갑으로 상징화함으로써 자주적이면서도 고유한 성격을 갖는 한국 해군만의 계급장 문양이 탄생하게 된 것이었다.

한편 정착기의 계급장은 3군 통일형 계급장으로 개정된 특징으로 보인다. 장교의 계급장 통일화 작업은 국방부 차원에서 1953년 즈음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금강석(위관급), 대나무 잎사귀(영관급), 별(장관급)이 해군장교의 계급장 문양으로 채택되었다. 이 문양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계급적 의미를 자연계의 현상을 빌어 표현한 것으로 그동안 해군이 독자적으로 사용해오던 문양체계에서 3군 공통의 통일된 문양체제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3군 통일형 계급장은 1954년 5월부터 1975년 8월까지 전군에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해군장교 계급장은 1975년 9월에 이르러 부분적인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개정 이유는 장관급 장교의 별 문양 계급장이 미국을 비롯한 외국군 장교의 그것과 동일하여 고유성이 부재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을 상징하는 무궁화와 무궁화 잎사귀를 계급장

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이는 1980년 1월에 이르러 전 장교의 계급장에 모두 반영하여 통일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되었다.

한국을 상징하는 무궁화와 무궁화 잎사귀가 장교의 계급에 공통적으로 반영된 것은 해군이 소속된 국가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낸 것으로 보다 완성된 형태의 계급장 문양체제가 확립되어졌음을 의미한다. 결국 이 시기에 완성된 계급장 문양체제는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계승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군장교와 국군장교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핵심 문양으로 자리하고 있다.

(원고투고일 : 2018. 1. 13, 심사수정일 : 2018. 5. 9, 게재확정일 : 2018. 5. 14)

주제어 : 해군장교, 계급, 계급장, 문양, 상징, 금강석, 대나무 잎사귀, 별, 귀갑

<참 고 문 헌>

1. 사료

『高宗實錄』.

『承政院日記』.

『日省錄』.

『부대역사자료』 1권(1946.1.1. ~ 1980.12.31.), 해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3기생 앨범집』.

『해군사관학교 5기생 앨범집』.

『海軍禮式服制記錄物資料集』(관리번호 : 14-D-전-000020).

2. 저서

國防部, 『國防史 Ⅰ』,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1984.

金舜圭, 『韓國의 軍服飾發達史 II 現代篇』, 國防軍史研究所, 1998.

金在勝, 『近代韓英海洋交流史』, 仁濟大學校 出版部, 1997.

金在勝, 『韓國近代海軍創設史』, 혜안, 2000.

백기인, 『建軍史』,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서인한, 『대한제국의 군사제도』, 혜안, 2000.

심현용, 『한말 군 근대화 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오진근·임성채, 『해군창설의 주역 손원일 제독[상]』,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6.

이경미, 『제복의 탄생 - 대한제국 서구식 문관대례복의 성립과 변천』, 민속원, 2012.

海軍本部, 『海軍 30年史 1945~1975』, 1978.

海軍本部 戰史編纂官室, 『大韓民國海軍史(行政篇)』 第1輯, 1954.

3. 연구논문

신성재, 「한국 해군장교 정모회장의 변천과 그 함의」 『軍史』 94, 2015.
<http://uci.or.kr/G704-001528.2015..94.003>

신성재, 「해군장교 정모회장의 변천과 역사적 의미」 『대한민국 해군 우리의 미래(해군창설 70주년 기념 특별전)』,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2015.

4. 기타

金省三, 「우리 海軍의 걸어온 길」 『海軍』 創刊號(제1권 1호), 1951.

박원규, 「海軍服制 變遷概要」 『海軍』 제272호, 海軍本部政訓監室, 1977.

<Abstract>

The Transitional History of the Korean Naval Officer's Rank
Insignia:
- Focused on Metal Grade Insignia -

Shin, Seong-Jae

Rank insignia means a symbol that, attached to military uniform or cap, and shows soldier's status and rank. This article examines the transition of metal grade insignia especially. Design features of periodical changes in the insignia are summed as follows.

First, the rank insignia in early period was designed Taeguk symbol at the center of the bases of Mugunghwa pattern. This insignia had been used during the period from February 1 1946 to November 30. The insignia borrowed the retaining button of police officer's cap in the National Security Guard temporarily, which indicated the limits that the navy failed to establish its independent rank insignia.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the rank insignia of the Korean navy reflected its original characteristics. Of course, the star-shape rank insignia of flag officers was influenced by that of the US Navy. Unlike this, the rank insignias of officers below flag grade were manufactured following the tortoise shell shape that symbolized the armor protecting the rooftop of the turtle ship. It meant the birth of Korean navy's original rank insignia with independent and distinctive characteristics since the insignia was granted with the symbolic significance that the navy was the posterity of Admiral Yi Sunshin.

In the settlement period, the Korean naval officer's rank insignia was revised to the triservice common insignia. The Ministry of Defense began to commonize rank insignia in 1953 and adopted

diamond(Company grade officer), bamboo leaf(field grade officer), and star(flag officer) designs. These designs represented the gradually escalating ranks in terms of the natural world; they also meant that individual rank insignias of each branch of the armed forces became a triservice common system. The common insignia was in use between May 1954 and August 1975.

In September 1975, naval officer's rank insignia went through a partial revision. It was because the star-shape rank insignia of flag officers was identical to that of foreign armed forces and thus lacked originality. Therefore, Mugunghwa and its leaves were added to the insignia as the flower reflected Korean character. This design was expanded to the entire officer ranks in January 1980.

The application of the design that symbolized Korea to the entire officer's rank insignia meant the complete establishment of naval officer's rank insignia system as the design demonstrated clearly the national identity. This complete rank insignia system continues today, making itself the core symbol of the identity of officers of the navy and the Korean armed forces.

Key Words: naval officer, rank, rank insignia, design, symbol, diamond, bamboo leaf, star, tortoise shell